어떤 것이라도 훔쳐갈 수 있는 이치와 같은 것이지."

자신의 마음을 자신의 뜻대로 부리지 못하고 탐진치에 수시로 도둑 맞으며 살고 있는 사람들을 향한 경책이다.

스님은 이어 "눈에 보이는 것은 거짓말을 많이 하며 말도 거짓이 많다"며 "지금 내가 하고 있는 말에도 속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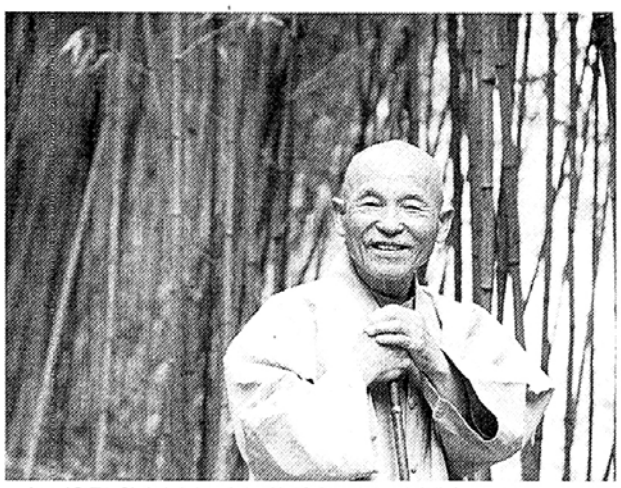
"육근이라고 하는 놈은 거짓이 많아. 눈은 안 보아도 될 것은 더 잘 보고, 귀는 안들어도 될 말을 더 잘 듣고, 입도 안덕어도 될 것을 더 잘 먹고, 몸은 안해도 될 행을 더 잘하거든. 그러니 이 모든 것을 하는 그 놈이 무엇인가를 관하고 참구하는 참선을 통해 생사를 뛰어넘고 궁극의 문제를 해결해야 해. 육체의 유한성을 뛰어넘어 영원의 진리를 깨닫게 되는 길이 여기에 있기 때문이야."

스님은 가로수가 길에 쓰러져 있는 것을 보고 인간의 몸도 숨 들이쉬었다 내쉬지 못하면 송장이 된다는 것을 깊이 인식했다고 한다. 육체의 유한성을 자각하면 영원에 대한 참구는 간절해진다. 발심이 더욱 깊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정각을 이루려는 간절한 초발심을 잃지 않는 것이 불가에서는 아주 중요한 일로 여겨진다.

스님은 "처음 출가해서 배우게 되는 초발심자경문에 부처님의 가르침이 전부 들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며 "부처되는 길이 그곳에 모두 들어 있는데 발심이 제대로 안되니 길을 자꾸 벗어나 엉뚱한 길을 헤매게 된다"고 발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스님은 "순간 순간 최선을 다하는 것이 첫마음을 잃지 않는 것이며 초심을 견지하는 것"이라고 했다.

"공부할 때 일어나는 망상도 첫마음을 잃어 버린데서 생기는 거야. 망상에 속으면 안돼. 길을 걷다 헛발을 디뎠으면 다시 가던 길로 돌아오면 되는 것이지, 헛발을 디딘 것에 집착해선 안되거든. 당상을 없애려고 하지말고 망상을 피는 그 놈을 관하기만 하면 제자리로 돌아오게 돼. 그러면 망상을 끊어야지, 없애야지 씨름할 필요 없이 저절로 망상이 사라져."

스님은 삼재기도나 사주 팔자 모두가 마음의 장난이라고 말한다. 그래서 죽림정사나 스님이 20년 동안 암주로 있었던 대둔산 내원암에는 삼재기도가 없었다. 하루는 신도 한사람이 찾아와 "스님, 집에 삼재가 들었다고 하는데 우리 절에는 삼재기도 안합니까?" 하고 묻자 스님은 "삼재가 어디 있는지 한번 내나 봐라. 그러면 내가 없애 줄테니" 했다. 다급해진 신도는 집에 놓고 왔다고 했고 스님은 집 어디에 두고 왔느냐고 호통을 쳤다. 그 신도는 엉뚱하게도 "장롱 속에 넣어두고 왔다"고 대답을 해서 한바탕 웃었다. "삼재는 마음이 만드는 거야. 스스로 마음에 지어 놓고 자신을 괴롭히는 거지. 그러나 이렇게 말해줘도 자신의 마음에 걸림이 있으면 그런 사람은 삼재기도를 하든지,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라도 해결을 하고 넘어가야지."



◇스님은 공부할때 일어나는 망상도 첫마음을 잃어버린데서 생기는거라며 "순간 순간 최선을 다하는 것이 첫마음을 잃지 않는 것이며 초심을 견지하는 것"이라고 강조하셨다.

## 제 분수 · 마음자리 잘 살펴야
## '삼재' · '사주팔자' 마음의 장난

생각으로 짓는 지옥을 없애주려는 스님의 가르침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이삿날이 언제가 좋은가 물으면 비 안오고, 식구들 일손이 충분한 날 하면 좋을 것이라고 대답한다. 그리고 사주나 팔자를 봐 달라고 하는 이가 오면 얼굴을 쳐다보곤 다 봤으니 가보라고 돌려보낸다. 그러나 그것은 '돌려보냄'이 아니라 본래의 마음자리로 '돌려세움'이 아닐까 싶다.

95년 경봉스님을 시봉했던 스님과의 인연으로 이곳에 절을 짓게 된 스님은 상좌없이 '보리'라는 개와 함께 살고 있다. 먹을 것이 있으면 한끼 밥해 먹고 형편 닿는 대로 살고 있다는 스님의 검소한 삶이 오히려 풍족해 보이는 것은 왜일까?

"사람들한테 저 산이 내꺼야 그러거든. 그러면 사람들은 저 산을 샀느냐고 물어봐. 저 산 주인은 땅문서 보관하느라 고생이지만 나는 그런 걱정 없이 저 산을 보고 앉았으니 내 산이지. 허허허. 모든 게 내 것 아닌 것이 없어. 그러니 가지려고 욕심부리지 않아도 부자가 되는 거지."

점심 공양 후 스님의 이야기같은 법문을 듣고 있으니 언제까지라도 올 것 같던 비가 그치고 거짓말처럼 햇살이 내렸다.

스님은 넓지 않는 도량 이곳 저곳을 안내하기 시작했다. 법당 뒷켠으로 심어진 소나무와 할미꽃, 이름을 알 수 없는 야생화, 돌멩이 하나 잡초 하나까지 소중하지 않는 게 없는 듯 소개를 하신다. 식구를 소개하듯이. 마당에는 손수 화분에서 옮겨 심은 꽃이 피어있다. 법당 앞에서 스님은 "밤이 되면 달빛이 그림을 그려. 이 법당벽에다 벽화를 그리는 거지" 하신다. 달빛을 배경으로 나무 그림자가 벽에 비치는 것을 놓치지 않고 관찰하셨을 어느 밤의 스님 모습이 그려진다. 비가 그치니 대숲에 이는 바람소리가 더욱 맑게 마음을 씻어준다.

스님은 하루 전 일어난 비행기 추락 소식을 접하신 듯 사고의 대부분이 사람의 잘못으로 일어난 것이라고 지적했다.

"시설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미비점이 많잖아. 한국 방문의 해니 월드컵이니 말로만 떠들지 말고 준비를 철저하게 해야 해. 사고는 사람들이 제대로 일처리를 하지 않아 생겨. 관제시설이나 조종사의 비행 기술 등 뭐든 사람이 자신을 잘 살펴보고 정신을 차려 일을 처리하면 방지할 수 있는 사고가 많아."

사람만이 희망이라 했던 어느 시인의 말처럼 희망이 되는 사람, 정신이 맑은 사람을 내 몸의 주인으로 삼아야 혼돈과 전도된 가치속에 살고 있는 삶에 희망이 있다는 호통이다.

"부처님 가르침의 근본은 하나야. 수행 잘 하라는 것이지. 처음부터 계율 따로 있고, 뭐 있고 했는게 아냐. 많은 제자들을 데리고 수행하다 보니 지장이 생겨서 계율이 생겨난 거야.

어떤 사람이 어디가서 딴 짓하고는 장모님 돌아가셔서 다녀왔다고 거짓말을 했다고 해 봐. 그러면 다음에 진짜 장모님이 돌아가시면 그때는 또 다른 거짓말을 하게 되어 있잖아. 결국엔 거짓말이 습이 되어 자신을 구속하는 감옥이 돼. 그것을 방지하고 근원을 없애는 것이 계야.

결국 중요한 것은 수행이야. 자신이 왜 절에 다니는지 깊이 참구해 봐. 그것이 발심이야. 부처님의 근본 가르침을 깊이 이해하고 고개를 끄덕이게 되는 순간이 바로 진정한 발심의 순간이야.

그것이 참선의 시작이고 공부의 시작인 것이지. 그렇게만 되면 공부는 저절로 진행되고 진정한 불교인, 수행인이 되는 거지."

글=천미희 기자 mhcheon@buddhapia.com
사진=고영배 기자 ybgo@buddhapia.com

### 송암스님은?



스님은 당신의 살아온 발자취나 수행이력에 대해 일체 언급을 하지 않으려 했다. "고향도 모르고 왜 출가했는지 아무 것도 몰라. 지금 현재 여기 내가 있다는 것만 확실할 뿐, 그 외엔 모든 게 거짓이야. 내 모습도 참이 아니며 내 말도 거짓이 많아. 그러니 겉 모습에 속지 마." 늘 눈에 보이고 이름 붙여진 것에 익숙해진 우리들에게 스님의 이 같은 말씀은 당혹스럽다. 그러나 스님의 지나온 수행이력을 알지 못해도 지금 바로 여기에서 스님의 법문을 듣는 확연한 현실만으로 충분했다. 소중한 일이었다. 세수 일흔 아홉. 팔순을 바라보는 스님의 현재 속에 녹아 있는 과거와 미래를 죽림정사를 찾는 많은 후학들이 눈치챘고, 가르침을 구하는 그들의 발걸음이 잦아지고 있다.

송암스님의 크지 않는 방 벽에는 경봉스님의 사진과 글이 걸려 있고 한쪽에는 경봉스님이 쓴 반야심경으로 제자가 직접 나무로 만들어준 병풍이 소담하게 놓여있다. 돋보기는 한쪽 알이 깨어진대로 그냥 놓여 있고 그 이후로 스님을 책을 보지 않는다. 스님의 일상은 그처럼 형편따라 자연의 순리처럼 이어지고 있었다.

### "왜 출가했는지 몰라, 여기 있다는 것만 확실"

## 설곡스님의 스님이야기

경희 스님



(전호에서 계속) 스님과의 특별한 인연은 오랜 세월 지속되고 있다. 내가 대구 주변의 시골 절에서 주지소임을 보고 있을 때, 스님은 나를 불러 청년회 법회를 맡아서 설법을 해달라고 정중하게 부탁하셨다. 그 뒤 매주 수요일 저녁 청년법회를 5년 정도 한번도 빠짐없이 계속하게 되었다.

나는 그 청년회 법회를 성의를 다해 준비하고 이끌었다. 사실 청년들은 다음 세대를 이끌어 갈 주역이라는 점에서 미리 가꾸어야 할 중요한 인물들이다. 그러나 대다수 사찰에서는 청년법회를 경시하는 경향이 있다. 경제적으로 당장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지금 당장 이익이 되지 않는다고 돌보지 않는다면 내일의 우리 불교는 어디에 희망을 둘 것인가. 젊은이가 없는 집안은 대가 끊어지고 만다. 청년불교를 활성화시켜야 하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경희스님께선 청년들에게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여러 가지로 청년들을 도와주고 지원해 주기를 아끼지 않았다. 그리고 내가 청년회에서



법문을 할 때면 거의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참석해 내가 하는 말을 경청하셨다. 그리고 격려와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법문이 끝나면 내 설법이 부처님법에 어긋나지는 않았는지, 말이 너무 빠르거나 행동이 경솔하지는 않았는지, 어떤 점을 고쳐야 하는지 등등을 여쭙곤 했다. 그때마다 스님께선 어떤 점은 좋고 어떤 점은 어색하다고 자세하게 말씀해 주셨다. 스님의 그러한 성의있는 지적은 내가 설법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다.

스님의 격려와 칭찬이 나로 하여금 더욱 성의있는 설법준비를 하게 했고, 해를 거듭할수록 설법도 깊이를 더해 갔다. 그 결과 그 청년회에서 많은 청년들이 출가해 비구, 비구니스님이 되었다. 10여 명도 넘는 그들은 지금 전국에서 정진하며 포교하고 있으니 모두 스님께서 청년회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베푸신 은덕이라고 생각한다.

나중에는 매월 신도법회에도 나를 청해 법문하게 하여 여러 해를 계속했다.

스님은 항상 말씀하셨다. "무엇이든 스님이 하겠다면 다 도와드리겠으니 말씀하십시오. 장가가는 일만 빼고 어떤 일이든 도와 드리겠습니다."

그 말씀처럼 스님은 내가 어려울 때 여러모로 나를 도와주셨다. 내가 힘들어 할 때면 어느새 먼저 알고 불러서 정중하고 간절하게 중노릇 잘할 것을 신신당부하시곤 했다. "스님은 종단의 보배같은 사람입니다. 스님같은 사람이 설법을 잘 해서 부처님 은혜에 보답해야 합니다."

몇 년을 두고 해마다 명절이면 내가 거주하는 절의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라고 명절 음식을 정성스레 보내주시곤 했다. 철이 바뀔 때면 장삼이나 옷을 준비하여 주곤 했는데, 그럴 때면 반드시 잊지 않고 중노릇 잘할 것을 간곡히 당부하셨다.

"출가 생활은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비구스님이 되려면 몇 생을 수도해야 합니다. 숙세(宿世)의 선근이 있어야 하지요. 더욱이 스님은 설법을 잘하니 선근이 있지 않으면 어려운 일입니다. 부디 공부 게을리하지 말고 열심히 수행해서 불조의 은혜에 보답해야 합니다." 스님의 말씀이 얼마나 간절하던지, 그러한 간절한 당부가 오늘의 나를 있게 한 기틀이 되었다고 생각한다.

경희스님은 전국에서 가장 먼저 창설된 대구불교사원주지연합회의 발기인이다.

"우리 스님네가 신도들에게 무엇인가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절마다 스님들이 각기 다르게 가르치니 신도들이 우왕좌왕 어찌할 바를 모르게 됩니다. 그러니 신도들을 한 곳에 모아서 교육을 시켜야 합니다"라고 늘 말씀해 오늘의 대구불교사원주지연합회와 대구불교교육원이 있게된 것이다.

### 청년회에 아낌없는 지원
### 신도교육, 노인복지에도 관심

스님은 솔선수범하여 보시하고, 사심없는 결정으로 대구불교연합회를 운영함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대구에는 불교계에서 운영하는 양로원이 한 곳 있다. 화성양로원이다. 본래 대구의 몇몇 스님들이 정재(淨財)를 보시하여 건립한 것이지만, 운영 미숙으로 다른 사람의 손에 넘어가 버리고 만 것을 가슴아프게 생각하다가 스님께서 인수해 지금도 운영하고 있다.

칠팔십 명의 노인들을 돌보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러나 스님은 "노인들을 업신여기지 마라. 우리도 언젠가는 늙고 기운 없어지면 다 저렇게 된다. 자비심으로 잘 보살펴 드려야 한다"면서 자주 양로원에 들러 노인들의 손을 잡아주시곤 한다. 자신의 이익이나 명예만을 돌보며 사는 세상에 스님같이 살아가는 수행자는 많지 않다. 자신의 건강이나 안위를 돌아보지 않고 사회와 이웃에 따뜻한 마음을 베풀며 살아가는 스님은 우리 사회의 소금이며 목탁이다.

나는 은사나 스승에게도 못하는 말을 경희스님에게는 스스럼없이 하곤 한다. 스님은 내게 수행자로 살아온 지난 세월을 되돌아보게 하고 오늘 서있는 자리를 살펴보게 하는 선지식으로 남아 가장 진실한 말씀을 해주시기 때문이다.

구미 영명사 주지


실크로드 여행사 조계사 앞 확장 이전

오대산. 운강석굴 6일

■ 출발일 : 2002년 5월 23일, 30일 출발 - 95만원! ■ 오대산의 가장 좋은 계절

문수보살 성지 오대산 · 운강석굴 순례!! 6일

- 제1일 : 인천 - 북경 - 석가장 · 인천출발 : 중국의 수도 북경 도착, 북경출발 석가장 도착 후 호텔투숙
- 제2일 : 석가장 - 오대산 · 조주선사의 관음 원인 백림선사, 임제선사의 임제사, 개봉사 등 순례
- 제3일 : 오대산 · 오대산중대, 현통사, 보살정, 탑원사, 수상사, 대라정, 용천사, 금각사 등 순례
- 제4일 : 오대산 - 대동 · 응현 목탑, 현공사 등 순례
- 제5일 : 대동 - 북경 · 운강석굴, 화엄사 등 순례
- 제6일 : 북경 - 인천 · 자금성, 천안문광장 등 순례

● 포 함 사 항 : 항공, 호텔, 식사, 입장료, 비자비, 인천공항세, 중국공항세, 보험료 등
※ 구 비 서 류 : 여권만 제출 (유효기간이 6개월 미만인 분은 연장해야 함)
※ 여권이 없는 분은 여권용 사진 2매, 주민등록증 원본, 주민등록등본 1통, 인지대 5만원

구화산, 황산 4박 5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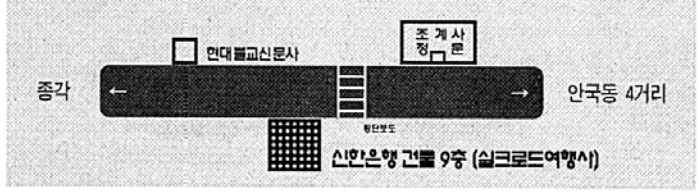
▶출발일 6월 4일 - 8일 ▶순례비 : 87만원

선종사찰순례 10박11일

▶출발일 : 6월 13일 - 23일

초조 달마대사의 소림사, 2조 혜가대사의 이조사, 3조 승찬대사의 삼조사, 4조 도신대사의 사조사, 5조 홍인대사의 오조사, 6조 혜능대사의 남화사, 운문사, 진여선사, 임제선사의 임제사, 조주선사의 백림선사등 이외 중국 선종의 발자취 순례

실크로드를 아껴주시는 대덕 큰스님과 불자님들의 도움으로 당사 사무실을 조계사 앞으로 확장 이전하였습니다. 항상 성원해 주시는 분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실크로드는 앞으로 더욱 열심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대표이사 이상원 합장




(주) 실크로드여행사
(02)720-960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68-5 서흥빌딩 9층

아미산. 대족석굴 5일

■ 순례기간 : 2002년 5월 22일 출발 - 87만원!

- 제1일 : 인천 - 중경 · 아령공원, 양자강, 조천문 부둣가 등 순례
- 제2일 : 중경 - 대족 - 아미산 · 중국 사대 석굴 중 하나인 보정산 석각, 대족석굴 순례
- 제3일 : 아미산 · 보현보살 도량인 아미산 금정 등정, 와운암 화장사, 만년사, 보국사 등 순례
- 제4일 : 아미산 - 낙산 - 성도 · 높이 71m의 낙산대불, 무후사 등 순례
- 제5일 : 성도 - 인천 · 두부초당 순례 후 인천 도착

티베트. 수미산순례

짙푸른 하늘 아래 눈부신 황금탑과 거대한 포탈라 궁전, 전설의 불교왕국, 신들의 세계등 티베트는 신비의 베일에싸인 나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번 순례는 부처님의 세계로 불리우는 수미산과 아뇩다지로 지칭되는 마나사로바 호수등 경전상에 나오는 수미산의 세계를 찾아보는 일정으로 특히 올해는 12년만에 한번 맞는 성스로운 해로 업장소멸 및 수미산의 신비로운 기운과 영적인 세계를 탐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수미산 순례 17박 18일
▶ 출발일 : 6월 15일 - 7월 2일 ▶ 순례비 : 359만원
▶ 일 정 : 인천 - 성도 - 라사 - 시가체 - 라체 - 사가 - 파양 - 마나사로바호수 - 수미산 - 파양 - 사가 - 라체 - 시가체 - 라사 - 성도 - 인천

■ 티베트 일주 10박 11일
▶ 출발일 : 6월 15일 - 6월 25일 ▶ 순례비 : 239만원
▶ 일 정 : 인천 - 성도 - 라사 - 티베트 최초의 삼예사원 - 갼체 - 시가체 - 시가 - 장무-카투만두-인천